

• 협회뉴스 •

벤처넷 정식 오픈

벤처넷(www.venturenet.or.kr)이 지난 달 27일 정식 개편 오픈했다.

벤처넷은 중소기업청과 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벤처기업지원 종합정보포털로, 인터넷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 비즈니스 지원 등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 벤처확인온라인시스템서비스 안정화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전 데이터의 부정확한 상태로 인한 오류발생 정비 등 벤처확인온라인시스템 관련 DB 정비도 마쳤다.

개편 내용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벤처확인절차가 벤처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원화됐을 뿐 아니라 접수는 물론 'My 벤처확인' 메뉴를 통해 각 기업별로 벤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벤처PR룸' 메뉴에서는 자사의 우수한 기술, 제품을 스스로 마음껏 홍보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제안' 게시판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또 '경영지원넷'을 통해 인재채용, 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벤처기업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한다. '벤처지원정보' 메뉴는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와 벤처기업간 정보공유의 장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벤처넷은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과 미래의 투자처를 발굴하는 개인투자자(엔젤), 벤처캐피탈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한다. 벤처투자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엔젤투자정보를 통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창투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이번 벤처넷 정식 오픈을 맞아 이벤트를 마련했다. 'I Love Venture'라는 주제로 벤처를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 이야기 등 다양한 사연을 공모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벤처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회, 금년 사업계획 논의



▲ 제10회 정기 이사회 장면

협회는 지난 달 24일 제 10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이사회는 2002년 협회사업의 반성과 경과보고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3년 신규사업 계획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사무국은 'Venture Korea 2002 Review', '협회 조직 및 인력 조정계획', 'Industry Map 제작결과보고', '벤처넷 이관 추진 경과보고', 'KOVA Web 구축' 등이며, 심의 안건은 '2003년도 협회 신규사업계획', '제규정 제정', '신규회원 승인' 등을 상정했다.

이에 이사회는 'Venture Korea 2002'의 기능별 검토와 문제점등을 살펴보고 'Venture Korea 2003'의 개선방향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1본부1실, 1부4팀을 2본부1실, 4팀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을 조정 했다.

신규사업은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투자유치 사업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벤처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조직 및 인력관리, 인사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규정이 제정됐다. 규정제정 종류는 취업규칙, 직제 및 정원규정 등 13종이며, 효력은 금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